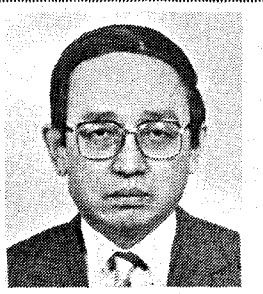
題号변경 特輯

癌의 발생원인



金 炳 洙
〈延世醫大암센터所長〉

早期診斷의 重要性인식부족이 큰원인
癌征服위한 社会각층의도움 절대必要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질병이 완전 퇴치되었거나 또 쉽게 제료될 수 있는 20세기 후반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것이 암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뇌졸중 다음으로 암이 사망의 2번째 원인으로 되었다. 경기도 강화군 1천명 인구를 대상으로 정밀히 조사해보니 매년 1백25명이 암에 이환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발병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약간 낮으나 대단히 많은 숫자로 전국적으로 4만내지 5만명이 암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정밀히 각종 암의 발병 양태를 조사해 보니 남자에서는 위암(43%), 폐암(16%), 간암(9.2%), 백혈병(6.9%), 순서이며 여자에게서는 역시 위암(30.1%), 자궁암(19.1%), 갑상선암(6.4%), 난소암(5.5%), 유방암(4.4%)순서로 발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이 우리나라에는 선진국과 암발생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치료대책 자체도 선진국과 차이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에 난관이 많은 경향이나 일반 국민이나 의료진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면 퇴치가 비교적 용이한 것이다. 과거 20여년간 암치료에 있어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와서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반수의 환자에서 치료후에 5년을 생존하며 대부분의 경우 5년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고 완치되는 것이 통례이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암은 2백50가지 정도되는데 이중에 대부분의 암이 본인만 조심하면 쉽게 예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위암의 경우도 조기진단하면 수술로써 90%까지 완치시킬 수 있다.

조기진단은 자기가 유의하면 되는 것으로 40세 이상에서 특히 명치끝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되는 것 같으면 한번은 꼭 위장 사진이나 위내시경을 받아 보고 이때 위암이 없는것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화장애가 있으면 약국에서 소화제를 몇알 사서 복용하다가 다펴진 다음에 병원에 오기 때문에 문제다. 수술이 불가능하여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나라에서 무료로 내시경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때문에 조기에 위암이 진단되어 완치율이 대단히 높다.

위암 뿐 아니고 모든 종류의 암이 조기진단이 되면 치료에 유리하고 완치율이 높다. 여성에 많은 자궁암은 1년에 한번씩 자궁경부에서 분비물로 세포검사를 받으면 자궁암 발병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거나 또는 초기에 발견해서 쉽게 1백%완치 시킬 수 있다.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서 각종 암이 전부 발생하므로 암종류에 따라 외과선생의 전문도 다르게 된다. 폐암은 흉부외과의사, 방광암은 비뇨기과의사 등 암치료에 참여하는 외과의사는 여러방면의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조기발견만 되면 수술로 완치율이 좋은 암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도 위암(50%내지 90%), 자궁암(1백%), 유방암(80%), 대장암(80%), 갑상선암(90%), 방광암(70%), 신장암(80%), 피부암(1백%) 소아에 발병하는 암(80%)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②수술받고도 더 필요한 치료?(재발 방지요법) : 암치료에 수술이 중요한 것은 1백여년 전부터 많은 유명한 외과의사들이 노력해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부위나 깊은 부위에 있어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별문제가 없다. 과거에는 확실히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수술방법외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문제는 수술만하고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있으면 재발률이 높아서 환자가 암으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암치료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요이유가 비록 훌륭한 외과의사가 수술을 만족스럽게 했다 하더라도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재발률이 높은 것이 많고 또 완전 근치수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과의사 이외에 방사선치료전문가와 항암제를 전문으로한 약물요법 전문가가 환자를 함께 보고 추가로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법을 암의 다방면 요법(Multimodulity theraphy)이라고 하여 전세계적으로 암치료에 근본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암치료가 수술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또 중요한 것은 외과선생님께서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 수술이후에 방사선치료나 항암제 요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또 그 방면 전문가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같이 수술이후에도 추가치료로 완치율이 높이 상승하는 암의 종류는 많이 있다. 위암이 수술시 위벽 밖에까지 또는 위 주위에 임파선까지 퍼져 있으면 수술단독으로 15%정도의 완치율이나 이때 항암제를 1년이상 투약하면 60내지 70%로 완치율이 향상된다. 유방암도 2기의 경우 수술후에 항암제 요법을 6개월이상 시행하면 완치율이 20%에서 80%로 높아진다.

직장암의 경우 주위 임파선에 퍼진 경우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하여 주면 40%에서 80%로 좋아진다. 소아의 신장암은 수술단독으로는 20%완치율이나 방사선치료와 항암제 투약으로 80%로 치유된다.

③퍼져있는 암도 완치되는 것이 많다 : 다행히 조기진단되어서 근치수술이 되었을 때는 수술단독만으로 또는 추가로 병행해서 방사선치료와 항암제 투약으로 용이하게 완치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매일 같이 당면하는 암환자는 진단이 늦어져서 암이 많이 진행되어 병원을 찾게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렇게 되는 책임은 우리 의료진의 계몽부족과 일반국민들이 암의 조기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의 탓이 많아 있다.

진단 당시에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왔거나 또 수술은 받았으나 암이 주위에 퍼져서 완전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 또 한가지로는 백혈병같이 처음부터 전신의 피를 통해서 퍼져서 발병하는 암등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암이 퍼져서 발견되면 불치로 간주하고 포기하는 의사나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계몽이 대단히 필요하다.

최근에 발전한 암의 다방면 요법, 특히 약암 퇴치에는 국가와 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단 암이 발병하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또 많은 경우 사회 각기관이 참여하는 기구가 있어 완치치료를 돕고 있는 것이다. 또 암연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50% 이상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회 각 계층이 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나라에서 책임져야할 더 급한 일이 많은 이유로 이러한 암퇴치에 도움을 못주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10여년 후가 되어서 나라 살림이 좋아지면 정부에서 암퇴치에 필요한 예산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 가능한 것은 사회 각층의 뜻지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현재로 이제 겨우 이러한 운동이 태동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한 암협회의 창립이 가능하였던 것도 지난달에 작고하신 중앙병원 원장이시던 김석환박사께서 기금을 희사하시어 그것을 기초로해서 암협회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제일 좋은 예가 해태그룹의 박건배회장께서 연세암센터에 향후 5년간 매년 1억원씩 기증하기로 결정하여 이 기금으로 현재 암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암의 기초및 치료법 연구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된 바가없어 국제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대단히 창피하였는데 이번에 해태암기금으로 강화도에서 연구를 해서 암발생현황을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암의 치료법에 대한 연구도 외국에 의존하는 의타성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분들의 성의와 후원만이 암을 퇴치하고 또 발병되더라도 쉽게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암치료의 발전

①수술 잘 받는 것이 중요 : 우리 몸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암이 일찌기 발견해서 암수술을 잘 하는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처음부터 정확히 진단해서 경험많은 암수술을 전공한 의사가 근치적인 절제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암을 완치시키는 확실한 길이다. 오진이 되어 암인지 모르고 작은 수술을 받아서 암이 남아있거나 또는 처음부터 많이 퍼져있어 완전 절제가 되지 않으면 완치율이 대단히 불량하여지며 치료에 난관이 따르게 된다. 한번 수술을 받은 사람은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다시 수술을 받아도 완치할 수 있는 근치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의 근치수술은 암부위 뿐 아니고 근처의 그암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나 조직 특히 임파선을 전부 제거해야 하므로 광범위한 수술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경험많은 병원에서 특히 암수술을 전공한 의사에게서 수술받고 그 선생의견에 따라서 후속치료여부가 결정된다.

靜脈注射用 γ-Globulin

아이.비-글로불린

●효능·효과 :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과 병용투여,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 저·무 감마 글로불린혈증.

●포장단위 : 500mg/vial, 1,000mg/vial, 2,500mg/vial

GREEN CROSS 주식회사 녹십자 ●본사 : 584-0131(代) ●판매 : 서울925-0131, 부산83-8977, 대구352-4911, 대전623-0131, 광주56-5781, 전주3-7310, 마산2-4991, 원주42-2759, 청주52-8661, 인천73-0132